
기획논문 2

식민지 근대와 고전의 탄생

고전은 시간을 뛰어넘어 변함없이 의미 있게 읽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 현재 우리에게 고전으로 통용되는 책들을 생각하면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이 성립하고 유통되는 고전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다. 단적으로 근대 이후 유가 경전의 추락을 생각하면, 주로 서양책으로 채워진 현재 우리 고전의 리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와닿는다.

고전은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형성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전 리스트는 근대적인 성격의 여타 사업과 동일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고전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불변성이나 보편성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발생과 유통, 수용의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서양고전을 다루는 고전학이 근대에 성립하면서 ‘고전’이라는 단어도 유통되기 시작했으니, 고전 자체가 근대적인 존재이다. 근대학문으로서 고전학이 아시아에서는 중요학문으로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 고전을 채우는 함의는 서양에서 통용되는 함의와 다르지 않다. 즉 현재 이른바 주류로 여겨지는 문화권의 참여자들이 주요 저자들이다.

한국에서 고전의 성립은 근대문명의 수용사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유럽 근대문명을 수용하는 데 다양한 수용논리가 공존했듯이, 고전 역시 다양한 배경에서 탄생한다. 근대문명의 수입 논리를 가령

개화, 위정척사, 동도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고전이 성립한 경위 역시 비슷하게 갈래지을 수 있다. 가장 많은 고전은 서양에서 이미 고전으로 성립한 책들의 번역서일 것이다. 번역 초창기에는 한국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대폭 각색된 번역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보편을 표방하면서 아시아에 상륙했지만, 보편의 확장을 추동한 것은 민족주의적 욕망이었다. 민족주의 역시 자극되고 학습되어 한국에서도 민족주의적 고전이 탄생한다. 민족주의적 고전 리스트는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그 한편에서 기존의 유학적 세계관에서는 홀대되었던 전통 서적들이 근대에 적합한 것으로 재평가되어 부상하기도 한다.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과의 관련을 지우고는 설명할 수 없듯이, 고전의 성립 역시 그러하다. 일본이 근대유럽을 번역하는 데서 선진이었다는 이유와 더불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정치적 이유가 더해져 한국에서 근대유럽의 수입은 많은 부분 일본을 경유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제국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방식으로도 일본과의 관련은 형성된다.

우리는 식민지로 맞이한 근대한국에서 고전이 성립해가는 초기의 모습을 탐색하였다. 세부 전공이 다른 다섯 명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발판으로 삼아 식민지조선에서 고전이 성립해가는 다양한 경로들을 조명했다.

김현의 「식민지 조선의 『일리아스』 읽기: 연애소설로 읽은 노자영 연구」는 1920년대 번역된 『일리아스』를 다뤘다.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노자영은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재구성하여 소개하였다. 김현은 이를 삼일운동 이후 삼엄해진 검열 환경에서, 출판사의 사업적 전략과 대중의 욕망이 만나 태어난 ‘연애의 시대’의 산물로 해석하였다.

장문석의 「김사량과 독일문학」은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독일문학 연구자이자 작가였던 김사량의 ‘읽기’와 ‘쓰기’ 사이의 괴리를 통해 당시 조선문학이 놓인 세계를 조명하고자 했다. 김사량은 유럽 안에서 후진적 위치에 있었던 독일 문학을 조선문학의 상황에 유비하고,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정립할 조선의 괴테가 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

작가로서 ‘쓰기’를 시도하면서 독일문학으로 대표되는 서구적 교양과 자신이 처한 동아시아의 현실 사이의 어긋남을 실감하면서, 서구문학이 아닌 동아시아문학의 전통에서 혁명과 예술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행한다.

이혜경의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 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는 조선시대에는 양지로 나온 적이 없었던 양명학이 근대에 이르러 재평가되는 배경을 일본제국의 학지와 관련해서 논했다. 도쿄제국대학의 교수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라는 틀로 일본양명학이 근대일본을 열었다는 서사를 만들고,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카하시 도루는 이노우에의 유학 이해를 조선연구에 적용해 조선을 주자학 일존의 정체된 사회로 규정하였다. 이 논문은 정인보의 양명학 현상이 한국인으로서 정인보의 특성을 담보하는 한편에서, 다카하시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부분적으로 이노우에의 답습임을 논했다.

김성수의 「20세기 한의학의 ‘新’ 고전 탄생: 이제마와 사상의학」은 민족주의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전통의학서를 다뤘다. 조선 최말기에 출간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은 1920년대 중반에 매체의 소개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허준의 『동의보감』과 쌍벽을 이루는 권위 있는 의학서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논문은 기존의 봉건적·신분적 규범에 따른 의학의 권위 형성 기제가 변화하면서, 사상의학이 새로운 권위로 등장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홍종욱의 「실증사학의 ‘이념’: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는 ‘민족사’ 서술의 이론으로 작동한 ‘실증사학’의 성격을 천착했다. 랑케의 역사주의는 실증주의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비판하면서도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강조함으로써 실증사학으로 불리게 된다. 실증사학은 사실파악과 더불어 가치판단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념을 지향했다. 일본의 식민사학과 이병도의 역사학은 공히 실증사학으로서 국민사학의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이념과 무관한 것이라는 실

증사학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실증사학이 국가와 민족을 지향했음을 논했다.

이혜경